

2025년 경남 농촌공간 재구조화 공통교육 시행

✎ 김순희 기자 | ☎ 승인 2025.11.06 15:16



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(손영식 본부장, 경남광역지원기관)는 경상남도 농업정책과(성흥택 과장)와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에 걸쳐 진주 동방호텔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, 및 기초지원기관이 참여하는 『2025년 경남 농촌공간 재구조화 공통교육』을 시행했다.

이번 교육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과 계획수립을 돕는 기초지원기관의 활동을 위한 강의들로, △경상국립대 김영주 교수의 농촌정책변화와 지역개발사업의 이해, △경남빅데이터센터 이현기 팀장의 농촌공간계획과 빅데이

터의 활용, △홍성군청 황바람 전문위원의 농촌공간계획과 주민참여, △라인교육연구소 라서현 대표의 기초지원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워크숍으로 진행되었다.

경남에서 진행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라는 신규 정책을 위한 교육인 만큼 일선 지자체 담당자 및 기초 지원기관(중간지원조직)의 참여 신청이 많아, 서부권은 진주에서 동부권은 창원에서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으며, 앞으로 진행될 교육과정 또한 사업 이해의 폭을 넓히고, 계획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강의로 엄선해서 구성할 예정이다.

경남광역지원기관으로서 손영식 본부장은 작금의 시대가 산업의 전환, AI중심 변화와 더불어 이상기 후, 지방소멸의 요소가 혼재하는 어려운 시대이지만, 살기 좋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.



김순희 기자 true@newsgn.com